

“연휴에 무안황토갯벌랜드로 가볼까”

무안군, 20일부터 이틀간 방문객 체험 및 먹거리 프로그램 확대

무안군은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하여 오는 20일과 22일 이틀간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해 체험 및 먹거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무안황토갯벌랜드는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빼어난 갯벌과 무안생태갯벌과학관 및 분재전시실 등 볼거리 이외에 다양한 숙박시설과 식당, 매점, 카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체류형 관광지로 201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면 아름다운 무안갯벌과 멸종위기 2급 생물인 흰발농게 등을 볼 수 있으며, 무안생태갯벌과학관에서

농게 및 판버튼 만들기 등 6개의 상설 체험프로그램과 매일 3차례 샌드아트와 3D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또한, 야외 갯벌체험 학습장도 있어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말 가족단위로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이들이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풍선아트와 연날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타코야끼와 외플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했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http://getbol.mua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해남군, 오늘 연등문화축제 개최

군민광장서 자장면 나눔·법요식·제등행렬 등 다채

불기 2622년 해남군 연등문화축제가 15일 군민광장에서 열린다.

해남 대흥사 주관으로 열리는 연등문화축제에서는 2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자장면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법요식과 제등행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가수 금잔디를 비롯한 초청가수 공연과 해군 3함대 군악대 연주, 풍물놀이 등 공연도 이어져 부처님 오신날 축하의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는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요식이 진행돼 대흥사 월우 주지스님의 봉행사와 조실 보선 큰스님의 법어 등 부처님의 지비 광

명을 높이 기리는 자리를 갖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정업등에 불을 밝히고, 행진하게 되는 제등행렬은 군민광장에서 버스타미널까지 왕복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대흥사 월우스님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지비광명을 신앙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흥사는 최근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함으로써 천년고찰의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 경사도 겹쳤다.

강진군, 농가체험 ‘푸소’ 후기 감상문·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매달 25명 선정 농산물 증정

강진군은 푸소(FU-SO)체험을 다녀간 학생,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기 감상문과 설문조사 이벤트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 당첨자는 매달 말일까지 접수분을 심사해 다음 달 5일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하며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선물로 푸소운영 농가가 생산한 3만~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증정하며 감상문 당선작은 상장과 함께 우수작에 한해 지역신문에도 게재한다. 매월 감상문 당선자 20명과 설문조사 당첨자 5명 등 25명을 선정한다.

푸소체험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감상문은 메일(pan6869@korea.kr)로 성명, 연락처와 함께 보내면 된다.

설문조사 이벤트는 의견을 카카오톡에서 ‘푸소’로 검색해 플러스 친구에서 주어진 설문조사 양식에 주관식과 객관식에 답하면 된다.

‘푸소’는 필링 업(Feeling Up) 스트레스 오프(Stress Off)의 첫 글자를 따 ‘감성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날려 버려라’라는 뜻을 지닌 강진군민의 농가체험 프로그램이다.

수확여행과 체험학습은 영랑감성학교와 강진지역 관공지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준범 강진군 문화관광과장은 “다녀간 푸소체험객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고 농가교육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내 몸의 주인은 나, 소중한 내 몸 내가 지켜요”

영암군, 초·중·고 30개교 3000여명 순회 성교육 실시



영암군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5월 말까지 6주간 관내 초·중·고 30개교의 3,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초빙 아름다운 성,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위기 대처 등의 내용으로 학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공교육에 담고 청소년들이 ‘내 몸의 주인은 나, 소중한 내 몸은 내가 지키다’라는 인식을 갖고 성적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행위 및 방관자 되지 않기, 긴급한 성폭력 위기 상황 대처하기 등도 제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성교육을 제공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매실산업 희망찾기’

내일까지 재배농가 400여명 대상 권역별 교육 실시



곡성군은 (사)한국매실사업단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매실 재배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매실산업 희망찾기’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순천시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7여

억 원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사업주체인 (사)한국

매실사업단과 곡성매실(주)이 함께 11개 읍·면별 권역별로 찾아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경과, 곡성군 매실 발전방향 및 수확기 고품질 매실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한다.

권역별 교육일정은 5월 14일 곡성을 권역(곡성, 오곡, 삼기, 고달면)을 시작으로, 5월 15일은 죽곡면 권역(석곡, 목사동, 죽곡면), 5월 16일은 옥곡면 권역(옥곡, 임, 검, 오산면) 순으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매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 가격 하락 등 매실 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며 “이번 매실 수확기 관리요령 교육, 매실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통해 곡성군 매실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